경향신문

"노후 건축물에서 탄소를 덜어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주목

박용근 기자 입력 2022.08.10. 13:56 수정 2022.08.10. 14:13

전북지역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간담회가 10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렸다. 전주대 제공

탄소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전북지역 그린리모델링사업 간담회가 10일 전주대학교 공학1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그린리모델링 전라권 플랫폼을 주관하는 전주대학교 김상진 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사업기술지원단, 국토안전관리원 이상엽 차장, 전북지역 13개 지자체의 그린리모델링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0년부터 국토부가 사업예산을 지원해 10년 이상의 노후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고효율 냉난방과 창호·조명·공조·내외장재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이 이뤄진다.

전북 도내 10년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1년에는 10개 시군 73개소가 사업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남원시, 부안군, 무주군이 추가된 13개 시·군 8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물에너지 절감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간담회에서 공사 전 신청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과 선정 후 공사를 위한 현장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전라권플랫폼 사업기술지원단의 위원들은 사전컨설팅과 현장관리 지원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이상엽 차장은 "국비 지원이 70%에 이르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전라북도지역에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이 즐비한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현안"이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